한여름 '철 없는' 다운 전쟁

metro
메트로 2014년 8월 6일 수요일 제3030호 www.metroseoul.co.kr

드라마도 듣는 재미 있어야

"잘 다녀와" 최근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 등 군대 내 가혹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5일 경기도 의정부시 306보충대에서 입영대상자들이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훈련소로 들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스마트폰 '황색 태풍' 몰려온다

Issue&View 취재부 이슈 분석

/박상준기자 zan@metroseoul.co.kr

애플 베낀 '샤오미' 중국시장 점유율 1위 등극
글로벌시장서도 폭풍 성장 삼성전자 턱밑 추격

샤오미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Mi4'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가 '팍스시니카'(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이 분야 선두 주자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안방에서 글로벌 1위 삼성을 제치는가 하면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는 애플을 3위로 밀어냈다.

5일 전해진 중국발 '샤오미' 소식은 예가 튼급 태풍이었다. 애플을 베낀 디자인으로 폰 샤오미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는 샤오미가 지난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4%를 기록하며 삼성전자를 2%포인트 차로 앞섰다고 전했다. '좁쌀'을 의미하는 샤오미가 '공룡' 삼성을 쫓은 셈이다.

지난해 5%에 그친 샤오미의 점유율이 1년 만에 280% 성장했다. 직전 분기인 1분기에는 삼성전자가 18.3%, 샤오미가 10.7%를 기록했다.

샤오미의 반란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인기가 내수시장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번 실적을 보면 판매량의 97%가 중국 본토에서 나왔지만 3분기부터 해외 시장 공략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샤오미는 러시아·인도네시아·멕시코 등 시장 사이즈가 큰 국가에 수출을 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IT 얼리어답터가 적지 않은 한국에서도 오픈마켓에서 어렵지 않게 샤오미의 제품을 살 수 있을 정도다.

◆ 착한 가격, 앞세워 무섭게 추격

샤오미의 폭풍성장 배경은 무엇일까. 착한 가격을 빼놓을 수 없다.

샤오미의 주력 상품이자 보급형 스마트폰 '홍미'는 한 대 699위안(약 11만원)에 불과하다.

삼성의 갤럭시노트2와 비슷한 성능을 지닌 '홍미노트'도 5.5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음에도 20만원대다.

샤오미의 플래그십 모델 'Mi4'는 어떨까. 퀄컴의 스냅드래곤 801칩, 3GB램, 64GB저장 메모리,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OIS)를 지원하는 16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 등 최고 수준의 스펙을 자랑하지만 가격은 50만원대에 그친다.

한마디로 갤럭시S5와 동급인 프리미엄 단말기를 절반가격 수준에 살 수 있다.

양대산맥인 삼성과 애플이 프리미엄 제품을 고집한 것도 샤오미에 반사이익이 됐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세번째 시장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6300·1000달러대로 2만 달러인 한국과 비교할 때 열악하다.

삼성과 애플의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다수의 사람이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OS의 힘이 컸다. 글로벌 시장 90%를 차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는 사실상 아이폰이 아닌 모든 스마트폰의 OS로 자리잡았다.

결국 삼성이 아니더라도 가격과 디자인만 뒷받침된다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샤오미의 부사장인 휴고 바라는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주물렀던 핵심 임원 출신이다.

샤오미를 필두로 화웨이·레노버 등 이른바 중국 삼총사들은 지난 2분기 글로벌 점유율 17%를 기록하며 11.9%에 그친 애플을 밀어내고 2위에 안착했다.

내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6년 동안 개인 간 계약 체결, 민간·공공서비스 신청, 구직·회원등록 등 생활 전반에 널리 쓰인 '만능번호' 사용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과 개인 모두 어떤 경우에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 신용도 조회, 회사 직원 인사관리 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등 법에 허용되는 경우다. 병원 진료 과정이나 진단서 발급, 약국 내 의약품 조제 때에도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마트와 백화점 등이 회원 포인트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입사원서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안행부 관계자는 "수집·활용이 허용되는 사례는 소수이며, 대부분은 금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 '마이핀' 서비스를 시행한다.

/정윤기자 ...

조지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5일 서시이야 타쿠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총무공사)가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다시 발표한 것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라"며 강력 항의했다 /연합뉴스

"가해·방조자, 일벌백계"

박 대통령 '윤일병 사건' 철저 조사 지시 · "병영은 수용공간 아냐"

박근혜 대통령이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5일 휴가에서 복귀한 첫 국무회의에서 "최근 28사단에서 장병 구타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은 져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반복 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왔고 그 때마다 바로 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병영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병영 시설을 수용 공간에서 생활 공간으로 바꾸라"며 "군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인성 교육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배당 = 외국인 배불리기' 인식 바꿔야

기자 수첩
김정정 <경제산업부 기자>

새 경제팀의 배당 유도 정책에 대해 '외국인 배만 불린다'는 볼멘 목소리가 기업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국부유출'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적용 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당을 늘리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내 일반투자자의 주식투자 외면현상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식투자자 수는 508만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7.3세였다. 50대 이상 투자자의 비중이 64.2%로 무려 3분의 2를 넘어섰다.

반면 한창 경제활동을 할 나이인 20~40대 비중은 35.4%에 그쳤다.

과거 산업화 세대가 젊은 시절 축적한 부로 증시에서 돈을 굴리는 것과 달리, 현 국내 경제의 주축인 청장년층은 저성장·저금리로 목돈 마련이 힘든 현실 속에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투자는 상대적으로 꺼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총액상위 20대 기업의 절반을 외국인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새 경제팀의 배당 유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지지를 얻기 힘들다.

배당이 확대되면 배당주 ETF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손쉽게 목돈 마련에 나설 수 있는 금융상품이 확대된다.

또 국내 증시 부진으로 해외 투자상품에 눈길을 돌리는 수요도 국내로 되돌릴 수 있다.

게다가 투자자의 국적을 따지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 일부 다국적 기업의 덩치가 웬 국가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의 구분이 '국가'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넘어간 지는 한참됐다.

국내 기업들도 배당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뉴스&뉴스

김재경 의원 "의무 병역제 수정 검토할때"

●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5일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 이후 일부에서 병역 거부 운동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특별 권력 관계이므로 기본권을 제한해 온 틀을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점검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 '유병언 변사체 문제' 사의

● 이성한 경찰청장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체에 대한 신원 확인이 지연됐던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청장은 "제 소임이 여기 정도인 것 같다"며 "여러가지 경찰이 책임질 문제가 많아 청장인 제가 짊어지고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황 프란치스코, 15일 세월호 생존자·유족 면담

● 오는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 학생들을 직접 만난다.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는 "교황이 오는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 참석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생존 학생들을 직접 면담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미사가 끝난 뒤 세월호 생존 학생과 유족들을 따로 만나 참사의 충격과 슬픔을 위로하고 이들의 얘기를 들을 계획이다.

윤일병 폭행치사 현장 조사 국회 국방위원회 황진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5일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28사단 포병대대 의무대 내무반을 찾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해주도 선임병 강제추행죄 추가

군 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 검찰이 윤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5일 "윤 일병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건 발생 당일인 4월6일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 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 모 병장, 이 모 상병, 지 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 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5월2일 기소됐다.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이날 경기도 연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실시해 일주일 내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현정기자

권오성 육참총장 "軍사건 책임" 사의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5일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권 총장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이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해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 총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와 군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며 "육군 전 장병은 우리 군의 고질적인 병영 문화를 쇄신해야 한다는 참모총장의 절박한 충정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34기인 권 총장은 육군본부 계획관리참모부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참 작전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내 요직을 역임한 뒤 지난해 9월 육군총장에 취임했다.

/조현정기자

라이터로 발바닥 지지다니…

황당한 軍 가혹행위 백태… 법원 처벌은 '솜방망이'

윤일병 사건 을 통해 군대 안의 가혹행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뤄지고 있는지가 법원 판결문에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제대 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기소된 사람들은 심심해서 '이등병인데 혼자 PX에 가서' '달리기를 못해' '보기 싫어서' 등의 황당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6월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창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폭행 사유는 '심심해서'였다. 그는 2012년 10월 부대 내 정신교육시간에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발바닥을 라이터불로 지졌다. 그해 11월에는 심심하다며 같은 후임병에게 방독면을 억지로 쓰게 한 뒤 구멍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군대라는 특수환경에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압대시키는 모정 5일 한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강원 춘천시 102보충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모씨의 가혹행위 정도는 더 심했다. 박씨는 이등병인 후임이 혼자서 PX(군부대 매점)에 갔다며 시비를 걸고 그를 침상에 눕게 한 뒤 손바닥과 발뒤꿈치로 성기를 마구 때렸다. 달리기를 못한다며 발로 가슴과 복부를 때리는가 하면 보기 싫다며 얼굴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 400회를 억지로 시키기도 했다.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런 식으로 가혹행위를 계속한 그에게 법원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현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싱크홀 복구작업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이날 17시 20분께 생긴 싱크홀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경찰은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인근 도로의 교통을 전면 통제했다. /연합뉴스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개체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5일 발령했다.

경보는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 중인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에서 매개 모기인 빨간작은집모기가 500마리 이상 채집되고 전체 채집 모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본부는 경보 발령과 함께 방충망을 등은 활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아동은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빨간작은집모기가 처음 발견된 지난 4월에는 일본뇌염 주의보가 내려진 바 있다.

/정혜인기자 [illegible]

'포천빌라' 피의자·아들 말 못 맞추게…

거짓말탐지기 내용 비공개… 남편 행적 파악 주력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8일째 수사 중인 경찰은 5일 피의자의 숨진 남편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피의자 이모(50)씨는 여전히 "10년 전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베란다에 숨져있었고, 거실에 있는 고무통에 넣은 뒤 작은 방으로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인 신분인 이씨의 큰아들(28)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경찰은 남편 박씨(51)가 축산업에 종사했던 기록을 토대로 옛 동료를 수소문하는 등 행적을 추적했다. 또 친인척이 박씨를 마지막으로 본 시점과 의료기록 등을 살피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 모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체은닉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남편 시신을 숨긴 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은 4일에 이어 5일에도 이씨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큰아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병행했다. 다만 모자가 말을 맞출 우려가 있어 아들 조사에 대한 분석이 끝날 때까지 이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0분께 포천시내 한 빌라의 작은방 고무통 안에서 숨진 박씨와 이씨의 옛 직장동료이자 내연남인 A(49)씨가 발견된 것으로, 경찰은 수사에 나선지 3일 만인 지난 1일 피의자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A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다고 인정하고 있다. /최그린기자 [illegible]

태양초 만들기 입추를 이틀 앞둔 5일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의 한 고추재배 농가에서 햇볕에 고추를 말리는 작업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자 면직 재명령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측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형사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배치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조퇴투쟁에 참가했던 일반 교사들의 징계처분 결과를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12개 교육청 중 상당수는 직권면직을 보류하기로 하고 일부 징계절차에 착수한 교육청은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다혜기자

검 "서종예 수사 물타기 아니다"

"선거영향 안 주려 최근 공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야당의 '물타기 수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관희아 수사를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6월께 서종예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하다 입법로비 단서가 발견돼 내사를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선거 후 비로소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 중 물타기 수사를 우려한다는 입장도 있고 여당 의원 소환에 맞춰 야당 의원을 소환한다는 음모론도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개명 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였던 서종예가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에게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 측에 소환 통보를 했다. /김현준기자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서울 용산구 성심여자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오답노트 만들어 반복 학습

Issue&View 수능 고득점 전략

/윤다혜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EBS·기출문제에 중점… 영역별 시간 전략적 안배

11월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안남았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취약한 영역을 보충하고 자신 있던 영역도 실전감각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수능의 경우 영어영역이 통합형으로 쉽게 출제돼 국어·수학·탐구 영역에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투스청솔 오종운 평가이사는 "지금 시기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수능 영역별로 마무리 학습이 중요하고 수시 지원에 따른 대학 및 전형 유형, 모집단위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마지막 11월엔 시험시간 맞춰 공부

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6월 평가원 모의평가 등을 통해 나타난 영역별 취약한 단원에 대하여 보완학습을 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에 대해 오답노트를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

올해 수능 역시 EBS와 연계율이 70%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으로 EBS연계와 기출 문제 풀이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영역별 개념 학습과 단어, 어휘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반 학습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역별 학습 시간을 전략적으로 안배하는 것도 고득점을 얻는 지름길이다.

9, 10월은 수능 마지막 정리 학습 기간으로 영역별 총정리와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수시1차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대학별고사 일정에 맞춰 논술, 면접, 적성고사 등의 기출 문제 및 모의 문제를 통해 마무리한다. 11월은 수능일까지 모든 시간을 수능 당일에 맞춰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영역별로 국어는 교과서 중심으로 정리하고, 수학은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다. 영어는 정확한 독해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의미 파악과 개념 정리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1호선 단일 노선서 17개로 확대

1970년대 종로선 노선도(왼쪽)와 2014년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서울메트로 제공

지하철 개통 40년 '그땐 그랬지' 1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다. 올해로 40주년이다. 40년동안 시민들과 함께 발전해온 지하철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은 단일 노선에서 17개 거미줄 노선으로 확대됐다. 지하철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노선이 지속적으로 생겨났다. 현재는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코레일 등에서 운영하는 17개 노선이 수도권을 이어주고 있다. /윤다혜기자

서울 검정고시 오늘 시행

2014학년도 제2회 서울 중위 고인 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가 6일 시내 14개 고사장에서 시행된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검정고시에는 중입 453명, 고입 1846명, 고졸 6260명 등 모두 8559명이 지원했다.

중입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학교이며 고입은 영등중·오금중·삼선중, 고졸은 상봉중·인헌중·잠실중·상명중·목동중·자양중·서빈중 등이다.

시각장애인은 중원조, 지체·경각장애인 등은 서울정은학교에서 대독, 대필 등의 편의와 확대 문제지가 제공된다. 재소자도 별도 고사장에서 검정고시를 치른다. /윤다혜기자

"독도는 일본땅" 10년째 반복

방위 백서에 '다케시마' 표기 지도까지…한국, 강력 항의

일본이 방위 백서(사진)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10년째 반복되는 주장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일본 방위 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지난해와 같다. 올해 백서에는 용어 색인에 '다케시마' 항목만 추가됐다.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서도 한국 영토에 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추가됐다. 방위성은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주변에 일본 영공 표시를 추가했다.

방위성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양 진출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 해양에서 이익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고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방 예산이 최근 26년간 40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관해서는 북 미사일 개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가 1000㎞로 늘어난 스커드 ER을 배치,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정부 간행물에서 10년째 반복하자 한국 정부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철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주해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4일(현지시간) 철수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72시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AP 연합뉴스

美 남성 한때 에볼라 의심

감염환자 아닌 듯 – 세계은행, 기니 등에 2066억 지원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을 보여 뉴욕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미국인 남성이 에볼라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뉴욕시 보건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마운트 시나이 병원과 협의한 결과 "해당 환자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 보건국은 "에볼라 감염 여부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 환자의 샘플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검사 결과는 나오는대로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뉴욕 맨해튼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고열과 위장 질환 등 에볼라 의심증상을 보여 철저히 격리된 상태에서 에볼라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 이 환자는 최근 서아프리카를 방문한 전력이 있어 에볼라 감염 여부가 의심됐다.

앞서 라이베리아에서 구호 활동을 하던 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귀국한 미국인 의사 켄트 브랜틀리는 2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도착, 에모리대학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세계은행은 에볼라 발병국인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등 3개국을 돕기 위해 2억 달러(약 2066억원)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도 이들 3개국에 6000만 달러(620억원) 가량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미기자

자원봉사자와 '습지 대청소'

30대 과학자 프로젝트

Se busca voluntarios para limpiar El Cascajo

페루에서 환경 오염으로 죽어가는 습지를 구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 대청소에 나서는 과학자가 화제다.

리마 북부 우아랄 지역에 있는 카스카호 습지는 4년 전만 해도 상수관이 샌 외래종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몇 차례 진행된 대규모 자원봉사로 철새가 돌아오는 등 원래 모습을 찾고 있다.

습지 프로젝트를 이끄는 주인공은 올해 37세의 마리노 모리카와. 일본 이민자 출신으로 우아랄 지역에서 자란 그는 현재 일본 츠쿠바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모리카와가 카스카호 습지에 관심을 가정인 것은 지난 2010년 페루에 사는 부친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다. "카스카호 습지가 사라져간다고 하셨어요. 외래 식물로 뒤덮여서 물이 안보일 정도라고 하시더군요."

그가 페루로 돌아와 확인해 보니 외래 식물은 문제의 일각에 불과했다. 모리카와는 "당시 습지는 거의 쓰레기장이었다"면서 "하수구가 따로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꼬박 사흘 밤을 습지에서 먹고 자며 쓰레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등 문제점을 파악했다. 그는 "주민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정신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인을 밝혀내낸 뒤 곧바로 습지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무모했다. 작업 내용을 널리 알리고 그저 자원봉사자가 많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예상 외로 호응이 좋았다. 사심 없는 그의 노력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오는 10일 그는 마지막 습지 청소를 앞두고 있다.

/세바스티안 로드리게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클래식 자동차, 샹젤리제 거리 가득

PHOTOS Des centaines de voitures anciennes défilent dans les rues

지난 3일 오래된 클래식 자동차 100여종이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수놓았다.

오래된 픽업트럭, 1957년 제작된 캐딜락, '할개차'로 불리던 초기 뉴비틀까지 약 700대의 오래된 클래식 자동차들이 샹젤리제 거리를 장식했다.

아침 8시 뱅센느 성 광장에서 출발한 차들은 바스티유, 몽마르트, 콩코르드 광장과 앵발리드를 지나 샹젤리제에 도착했다.

뱅센느 시가 주관하고 프랑스 코메디언 스망아 후원한 이번 행사의 정식 명칭은 '오래된 클래식 자동차로 한여름 파리 횡단하기'다. 이날 행사는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운전자들이 파리 천문대 잔디밭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크리스티앙 본피아 기자·정리=황주리 인턴기자

market index <5일>

코스피 2066.26 (-14.16)
코스닥 547.75 (-1.84)
금리 2.52 (-0.03)
환율 1029.20 (-3.80)

뉴스&뉴스

토즈 스터디센터 100시간 이벤트

프리미엄 독서실 토즈 스터디센터가 수능을 100일 앞두고 고3 수험생들에게 100시간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알뜰폰 2년 쓰면 기본료 반값!

● CJ헬로비전은 자사 통신브랜드 '헬로모바일'의 장기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 프로그램인 '평생반값플랜'을 론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알뜰폰 업계에서 선보이는 첫 장기고객 우대 프로그램이다.

평생반값플랜은 올해 말까지 헬로모바일 최초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기본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5개월 차 기본 요금부터 50%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기본요금 6만2000원인 LTE62 요금제를 쓰고 있는 고객이 기본료가 가입 2년이 넘는 시점부터 3만1000원으로 내려가는 방식이다. /서승희기자 [illegible]

1억 이하 전세 3분의 1

●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전세선호 현상이 계속되면서 경기지역 전세가 1억원 이하 아파트가 5년 전보다 52만여 가구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세가격 1억원 이하인 경기지역 아파트는 26만538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78만5952가구 보다 52만565가구나 줄어든 수치로, 5년 사이 3분의 1 토막난 것이다.

수원시가 5만7423가구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고양시 4만5429가구 ▲시흥시 4만2970가구 ▲용인시 3만9214가구 순으로 줄었다. /백현욱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공업(주) 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 [illegible]

소비자 아이디어로 제품 만든다

LG전자 매출액 4% 지급 파격 공모
SK텔레콤 주부자문단 운영도 눈길

2012년 첫 출시된 미니 프린터 '포켓포토'는 매월 약 2만5000대가 팔리는 인기 상품이다. 포켓포토 아이디어는 전문가가 아닌 20대 신참 직장인에게서 나왔다. LG전자 홈 엔터테인먼트(HE) 사업본부가 개최한 2010년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시 강동호(29) 사원이 소형 즉석 프린터 아이디어로 금상을 수상한 것이다. 포켓포토는 최근 50만대 누적 판매를 돌파하며 5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강 사원은 1년치 연봉에 달하는 두둑한 보상금과 한 직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기업이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 성장동력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과거 유통·서비스 업계에서 주로 이뤄지던 아이디어 공모전과 고객 모니터링 제도는 IT·전자·제조업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개발자가 아닌 실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제품을 만들어야 반응이 좋다는 선례가 인기 요인이다.

히트 상품 기근에 시달리던 LG전자는 사내 아이디어 대회 당선작 '포켓포토'가 흥행하자 올해를 '아이디어LG'란 전국민 대상 아이디어 대회를 개최했다. 아이디어 등록 수는 운영 3주 만인 지난 1일 5000건을 돌파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의 참가자 연령뿐 아니라 일체형 가전기기, 스마트 탈수기 등 출품 아이디어도 각양각색이다. 아이디어 당선자는 제품 매출액의 4%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도 집단 지성 효과를 위해 지난 6월 '모자이크'란 아이디어 교류 플랫폼을 개설했다.

통신 업계도 신규 서비스 개발에 고객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SK텔레콤은 주부로 구성된 '고객 자문단'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KT는 통신사 상관 없이 전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대역 LTE-A 품질 평가를 접수했다.

유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지금까지 기업의 고객 의견 듣기는 상품 출시 전후 반응이나 만족도 조사 등 사업자 관점의 활동에 그쳤다"면서 "그러나 고객의 목소리를 전략 수립 단계부터 반영하면 마케팅 성과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고객은 고객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이디어 무단 편취 위험도 존재

하지만 아이디어 공모는 기업이 값싸고 손쉽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취업을 미끼로 젊은 구직자들의 아이디어를 무단 편취하는 위험도 존재한다.

SK텔레콤 1기 고객 자문단이 25일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1차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SK텔레콤

지난해 하반기 신규 행원 채용에서 우리은행은 '자사 영업점을 방문해 동장 개선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느낀 점을 말하라'는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구직자들에게 영업 행위와 돈 거래를 강요한 것이다. 숱한 비판 끝에 우리은행은 항목을 수정했다.

방송국 PD 지망생 A씨는 자신의 프로그램 기획안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A씨는 "프로그램 주제와 패널 선정 방식 등이 방송국 필기시험 때 작성한 기획안과 거의 똑같았다. 나는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아이디어까지 빼앗긴 것 아니냐"고 격분했다.

한 공모전 관계자는 "우리는 공모전 등록 아이디어에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한다. 아이디어 누출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이 끝나면 전수 아이디어를 폐기한다"며 "그러나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윤리 의식과 규제 방안이 부족해 결국 개별 기업의 양심에 맡기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공모전 참가 시 공모요강과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저작권 관련 의문이 있으면 우선으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숙희기자 unsus@metroseoul.co.kr

내년 연말정산 토해내야 하나

납세자연맹 세금 추가납부 주장 파문

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직장인들이 속출하는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 1만6871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5만6642원, 총 3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전혀 없을 거라는 발표와 다른 주장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연봉 3000만~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홑벌이는 13%로, 지난해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6000만~700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정부 추계치(3만원)의 2.6배에 달하는 7만7769원의 증세가 예상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서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 검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세수 추계결과는 고작 18% 정도의 근로소득자에게만 부합한다"며 "세수 추계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결과 정부 발표 세수 추계 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하지만, 이를 벗어나는 사람은 82%나 됐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연맹은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가진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인원의 합리적인 표본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illegible]

외환보유 3680억달러 13개월 연속 최대치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13개월 연속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5일 한국은행은 7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680억3000만 달러(약 380조5000억원)로 한 달 전보다 14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규모다. 6위인 브라질보다 70억 달러 적은 수치다.

한은은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외환보유액은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355억9000만 달러로 91.2%를 차지했다.

예치금과 금 보유 규모는 각각 217억2000만 달러, 47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과 IMF에서 교환성 통화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인 IMF포지션은 각각 2만달러, 3만달러 감소했다.

한편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3조993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본(1조2839억달러)과 스위스(5565억달러), 러시아(4783억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24시간 해외여행 이벤트 5일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모델들이 코 앞에 김포공항 '24시간 해외여행' 이벤트 시작을 홍보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1월까지 구사 페이스북을 통해 베이징, 상하이, 타이베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6개 도시로 24시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날 행운의 주인공 20쌍을 선발한다. /연합뉴스

잠재적 '배당성장주' 뜬다

정부 활성화 정책에 기대감 커져

새 경제팀의 배당 활성화 정책에 따라 배당주 중에서도 '배당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졌다. 이미 고배당을 실시하는 종목과 비교할 때, 현재 배당 수준은 낮지만 향후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상승 여력도 크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달 말 고배당지수와 배당성장지수, 배당전략지수 등 여러 개의 배당지수를 올해 안에 선보일 계획을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배당 관련 '한국배당주가지수(KODI)'만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 선보이는 배당지수들은 코스닥 종목도 포함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여러 배당지수 중 배당성장지수에 대해 가장 큰 기대감을 표했다.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ETF 선도국가인 미국을 보면 배당수익률도 많이 고려하지만 배당 성장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배당 관련 S&P지수(SDY)는 과거 최소 20년 이상 배당이 연속 증가한 기업을 지수에 편입하며 배당 관련 다우지수인 DVY나 SCHD도 최근 5년간 주당 배당금 성장률을 종목 선정기준의 하나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당지수라고 해서 무조건 고배당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의 성장성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DVY의 경우 배당성향이 60% 이상으로 높은 기업은 편입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지나치게 배당성향이 높으면 오히려 미래의 배당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 점차 개선된다면 향후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주 국내 ETF 수익률을 보면, 정부의 배당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 등의 종목을 담은 ETF들이 강세를 보였다.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GIANT 현대차그룹 ETF'가 6.93%을 뛰고 'TIGER 경기방어 ETF'는 6.85% 상승했다.

배당주 중심의 'ARIRANG 배당주 ETF'는 5% 올랐다.

특히 자동차 업종은 글로벌 타 업체에 비해 배당수익률이 낮은 편이므로 향후 개선 기대감이 높다.

메리츠종금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배당수익률은 각각 0.8%, 1.2%였다. 포드(2.6%), BMW(3.1%), 도요타(1.9%), 르노·닛산(2.8%)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 저조하다.

SK텔레콤 등 통신주의 경우 대표적인 고배당 업종으로서 실적 부진에도 불구, 지난 달 이후 코스피지수의 두 배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강 연구원은 "새 배당지수를 앞두고 최근 3년간 배당이 연속으로 증가하고 현금흐름이 좋은 '성장형 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밝은 빛에 비춰보세요"

달러·위안화 감별법

각국의 노력에도 위조지폐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선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위폐가 급증, 위폐 감별에 익숙지 않은 일반인의 피해가 속출할 우려가 커졌다.

자신도 모르게 위폐를 손에 넣게 되면 환전할 때 구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즉석에서 검찰에 신고돼 인수 경위를 조사받는 곤욕을 치러야 한다.

5일 미국 비밀검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달러화 위폐는 1억5600만 달러에 달했다. 정교한 100 달러짜리 위폐 제조는 현대판 '연금술'로 불릴 정도다.

국내에서도 올해 1~7월에만 7개 은행에서 7만342 달러의 위폐가 발견돼 지난해 연간 발견 규모(4만7576 달러)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

지난 4월에는 중국에서 위조된 100 달러짜리 위폐 297장의 밀수가 부산에서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교하게 위조된 지폐는 전계의 따우 출시해 속절없이 당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위폐의 몇몇 특징을 눈여겨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올해 급증한 100 달러짜리 구권 달러화의 가장 큰 특징은 우측에 숨은그림으로 나타나는 벤저민 프랭클린 초상화다.

지폐를 밝은 빛에 비춰보면 진폐는 초상화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위폐는 다소 두껍고 투박하게 표현돼 있다.

달러화와 더불어 국내에서 피해가 많은 위폐는 중국 위안화다.

위안화에 인쇄된 마오쩌둥 초상화는 위폐의 경우 붉은 잉크의 번짐 현상으로 다소 질고 거칠게 보인다.

밝은 빛에 비춰보면 나타나는 마오쩌둥 초상화와 숫자 100의 숨은그림 역시 결고 진하게 나타난다.

윤진오 외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과장은 "중국에 갈 때는 100 위안이 아닌 소액권으로 바꿔가면 위폐 시가에 당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신용거래, 보증금 없이 가능

증권 투자 개선안 추진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에서 연체한 이자 일부 납입 시 이자납입일 변경(연기)이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시 신용거래에 대한 계좌설정보증금이 폐지된다.

신용거래란 증권매수 대금이나 매도 증권을 빌려 증권을 매매 마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개인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할 경우 신용거래 계좌를 설정해야 했다.

또 금융투자사에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의무적으로 예치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신용거래 시에는 계좌설정보증금 외에도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100분의 140이상)의 현금이나 증권 등 담보를 설정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계좌설정보증금의 실제 보증금 기능은 크지 않은 실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거래 계좌 설정시 설정보증금 예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연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란기자 arida@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 서평택 개발 신호탄

송담 형상화한 디자인 … 주방설계 돋보여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 투시도.

서평택 개발의 시작을 알릴 대형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했다. 현대건설이 평택시 안중읍 송담택지지구 80-1블록에 짓는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가 그 주인공. 송담지구 첫 아파트이자 평택 서부권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1군 브랜드로, 현대 주거문화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는 지하 1층~지상 27층, 12개동, 전체 95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 496가구 ▲72㎡ 218가구 ▲84㎡ 238가구로 구성된다. 전체 가구의 약 69%가 채광과 통풍이 용이한 판상형으로 설계됐으며, 특히 72㎡와 84㎡는 100% 판상형으로 만들어진다.

단지는 지역 명칭에서 모티브를 얻은 송담(소나무 숲속 연못)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주변의 자연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 클래식 스타일'을 적용하고, 옥탑과 상층부는 박공지붕으로 디자인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저층부 측벽 등 출입구와 기둥 등에는 숲속 연못에서 착안한 물결 패턴 디자인을 적용하고 저층 3개층은 화강석 마감을 통해 품격을 높였다. 또 파리 국립대학 팜글로 교수와 함께 개발한 힐스테이트 아트 갤러리에 최신 색채 트렌드를 반영, 입주민의 감성과 정서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컬러 테라피단지로 꾸몄다.

내부는 2014년 상품 콘셉트인 'Move&Fit'을 적용, 실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평면이 눈에 띈다. 특히 주부들을 위한 주방 설계가 돋보인다. 주부들이 선호하는 'ㄱ'자와 'ㄷ'자형 구조를 적용해 동선을 최소화 했으며, 타입에 따라 아일랜드 식탁이 제공된다. 주방 쪽으로 창을 내 통풍을 강화했으며, 자연채광도 가능하다.

대단지에 걸맞은 다채롭고 고급스러운 커뮤니티시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접한 현화지구의 인프라까지 공유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편의성이 증대가 기대된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 현대에디컬센터, 안중공용버스터미널,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갖췄다.

포승국가산업단지와 평택 중심가를 잇는 38국도와 북으로는 화성, 남으로는 아산을 잇는 39번 국도의 교차점에 있어 시내와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이를 통해 포승국가산업단지, 화성 기아자동차 공장, 평택 국제항 등으로 출퇴근도 편리하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338번지(안중터미널 옆)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이다. 문의 031-682-3500.

/박선옥기자

미래부 vs 방통위, 정책 갈등 깊어지나…

700MHz 주파수 할당·분리공시제 등 현안마다 대립각

제2기 미래창조과학부와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간 출범 초기부터 각종 현안을 놓고 정책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통신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에 힘을 실으며 정책 현안을 두고 잇따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해 "재난망에 우선 도입하되 기존 통신에 할당된 700MHz 대역도 원점에서 검토하자"고 언급했다. 이는 기존에 통신용으로 할당된 대역도 방송으로 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발언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해 통신업계는 급증하는 LTE 데이터트래픽에 대비해 통신용으로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상파3사는 초고화질(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 양측간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를 통해 "미래부와 협력해 UHD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700㎒ 대역 주파수 할당과 UHD 활성화와 관련해 미래부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은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700MHz 주파수 할당은 지상파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며 "700MHz 유휴대역 108MHz폭 중 지상파는 기본적으로 54MHz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럼 국가재난망에 20MHz, 나머지 34MHz 폭을 통신용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결국 이 같은 허 부위원장의 발언은 최 위원장의 700MHz 할당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양희 장관은 지난 1일 "정책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정권 편정낸 정책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어 방통위와 입장을 달리했다.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 역시 미래부와 방통위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방통위는 6일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 측은 단말기 유통법의 신뢰성과 분리요금제 추진 등을 위해서라도 분리공시제는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실무진은 분리공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리상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실제 제도의 효과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는 통신에, 방통위는 지상파 입장을 대변하면서 부처간 협력해야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자주 갈등을 빚고 있다"며 "부처간 갈등이 지속되면 각종 업계 현안 처리도 늦어지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백화점 속 작은 정글' 휴가철을 맞아 신세계백화점이 영등포점에 '정글 인 신세계' 전시를 마련해 5일 오전 어린이들이 해수중점어와 이구아나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곤충 표본과 동물 세밀화, 파충류 체험관으로 이뤄진 이 전시에서 애완동물인 동물과 파충류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모바일 공룡 조짐

콜택시 서비스도 준비

KAKAO

카카오가 모바일 공룡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콜택시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메신저, 게임, 쇼핑, 금융, 포털, 교통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 모바일 플랫폼 포부를 드러냈다.

요즘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은 '카카오 게임하기'에서 거래된다. 게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카카오에 노출되지 않으면 팔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임사는 카카오에 게임을 올리려면 판매액의 2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높은 수수료는 게임 업계 고충이기도 하다. 게임사는 배급사에도 입점 수수료를 내야 해 이중 부담이 크다.

국내 PC 메신저 1위인 네이트온은 카카오톡 PC 버전에 허성이 무너졌다.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네이버 '라인'마저 카카오톡 점유율에 한참 못 미친다. 쇼핑 분야에서도 카카오는 '갑'으로 떠올랐다. 최근 카카오는 입점 기업을 일어내고 자체적인 '선물하기' 기능을 선보여 논란을 높였나. 기존 입점 기업과 중소 업계들은 카카오의 독점 행대를 비판했다.

카카오는 금융 분야에도 진출한다.

카카오는 이르면 이번달에 금융 서비스 '카카오 간편 결제'와 '뱅크월렛카카오'를 선보인다. '카카오 간편 결제'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고 상품 금액 결제 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거래가 이뤄지게 한다. 오바일 송금 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는 카카오톡 등록 친구끼리 하루 최대 10만원을 보낼 수 있게 한다. 시중 은행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야만 가능했던 것을 이제가 메신저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밖에 카카오는 오는 10월 '다음카카오'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손잡고 각각 포털과 모바일에서 쌓은 역량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IT업계·증권가에서는 다음카카오가 출범하더라도 다음보다 카카오의 성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운희기자 unvue@

SD건담 조정해볼까 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띠티게임즈 'SD건담 배틀스테이션' 신작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이대화(왼쪽 두번째부터) 띠티게임즈 대표, 에모토 요시아키 반다이코리아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넓은 공간감'이 포인트

기아차, 쏘렌토 후속 실내 이미지 공개

기아자동차 쏘렌토 후속 모델의 내부 공간이 처음 공개됐다.

기아차는 올 하반기 출시될 쏘렌토 후속 모델(프로젝트명 UM)의 실내 렌더링 이미지를 5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렌더링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쏘렌토 후속 모델의 실내는 '모던&와이드(Modern&Wide)'를 콘셉트로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공간감 넘치는 준대형 SUV의 느낌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크래시패드와 도어트림이 서로 연결되는 '랩 어라운드 스타일'을 적용해 넓은 공간감을 구현했으며 날렵하면서도 강인한 형상에 세련된 내장 디자인을 갖췄다.

기아차가 공개한 쏘렌토 후속 모델 인테리어 렌더링

쏘렌토 후속 모델은 탄력 있는 볼륨감의 크래시패드와 스위치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통해 유려하면 감각의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현대적 감각의 센터페시아와 에어벤트, 독특한 개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시트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추구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렌토 후속 모델의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며 고급 세단 못지않은 고급스럽고 안락한 공간 구현에 많은 공을 들였다"며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의 실내 디자인과 고급화된 디테일은 소비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쏘렌토는 2002년 정통 SUV를 표방하며 탄생한 이후 최근 20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일 쏘렌토 후속 모델은 2009년 출시한 2세대 모델 쏘렌토R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풀 체인지 모델이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달 29일 쏘렌토 후속 모델의 외관 렌더링 공개와 함께 기아차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kia.co.kr)과 현대차그룹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hyundaimotorgroup)에 렌더링 제작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김채린기자 fe_rane@

소다스트림으로 탄산수 드세요 탄산수 제조기 브랜드 소다스트림이 5일 오전 정자공작에서 탄산수 무료 시음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환경안전에 1조8천억 투자

작년보다 50%↑··비상경영 불구 집행 늘려

삼성그룹이 환경안전 분야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전체 계열사의 실적부진으로 비상경영에 나선 상황에서 환경안전 분야 투자는 지난해보다 50% 늘렸다.

삼성그룹은 5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지난해 환경안전 분야에 1조2000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올해 1조8000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1조8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1조원 정도를 집행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투자비는 대부분 노후한 설비를 개보수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앞서 지난해와 올해 환경안전 분야에 3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SAMSUNG

삼성그룹은 또 환경안전에 관한 노하우를 오랫동안 축적한 해외 유수의 회사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전자·화학·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계열사가 주축이 돼 사별로 전담팀을 꾸려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뛰고 있다. 특히 국내외 환경안전 분야 전문가도 영입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수원·구미사업장의 환경·안전·보건 분제 전기 등 석·박사급 경력사원을 상시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지난해는 388명의 환경안전 전문인력을 충원했다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두차례 불산 누출사고와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하던 물탱크 폭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자,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환경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삼성 관계자는 "경영 여건이 불리해졌지만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는 어떤 경우에도 유보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열사마다 금액을 줄이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ksgt@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 홈페이지 새단장 LG디스플레이가 감성적 디자인과 콘텐츠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편의성을 극대시킨 기업 공식 홈페이지를 5일 새롭게 오픈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박 대통령에 팬택 살리기 호소

협력사협의회 "기회 주면 반드시 살아남겠다"

팬택 협력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팬택이 회생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호소했다.

팬택 협력사협의회는 5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이동3사가 팬택의 단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팬택이 법정관리 신청은 물론 협력업체들은 줄도산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협력사협의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 기업손실 1조원, 정부자금대출(보증서)손실 5000억원, 정부 연구개발(R&D)손실 1000억원, 금융권대출손실 5500억원, 기업 가치 손실 수조원, 부도로 인한 환경손실 수천억원, 8만명의 실직자와 그 가족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실업급여 등의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눈물로 호소한다"며 "지금 550개 팬택 협력업체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카드정지, 가압류, 이자와 원금회수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고, 6월부터 협력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며 "팬택과 같은 기업을 만들려면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8만명의 고용창출을 하려면 수천개의 기업이 만들어져야 한다. 팬택에 한번의 기회를 더 준다면 협력업체와 더불어 일심동체가 돼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경쟁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

"보쉬, ABS 개발사례 배우자"

이상운 효성 부회장

"보쉬(Bosch)의 성공 비결은 고객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상운(사진) 효성 부회장이 8월 CEO레터를 통해 영업의 중요성에 대해 방점을 찍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경영진과의 대화'와 '임원간담회' 등에서 "영업이 첨병이 돼 회사의 성장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우리 회사는 주로 최종소비재가 아닌 산업소재를 취급하고 있다. 우리 나름대로는 잘 만들었다고 해도 고객에게 써야겠다는 요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제품은 사용해 고객 품질이 개선돼 수익성이 좋아진다거나, 고객 생산성은 높이고 제조비용을 절감토록 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때 고객은 기꺼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려 할 것"이라며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두터운 신뢰관계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알려진 보쉬의 사례를 꺼내 들었다. 보쉬는 130년이 넘는 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다.

이 부회장은 이를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파악해 충족시키고 변함없는 신뢰관계를 다져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인 ABS(Anti-lock Brake System)를 꼽았다.

보쉬는 1970년대말 고객사인 벤츠가 안전성 강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공동으로 기술을 연구해 ABS를 개발했다. 벤츠는 ABS를 장착해 빙판위에서도 멈출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차를 만들어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됐다.

이 부회장은 "고객의 사업내용이나 제품특성, 생산프로세스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말을 잊지 말고, 항상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쪽방촌 영세민위해 임대아파트 짓자"

임대료 월 3만3천원…중견기업聯, 정부에 제안

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의 쪽방촌에 거주하는 영세민을 위해 월 3만원대 최저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연합회 사회공헌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서울 5000여 가구의 쪽방촌을 대신할 영세민 공공임대 주택 공급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휴 토지를 제공하되, 주차장 시설기준을 배제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1200% 이상으로 올려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다. 가구당 2000만원의 건축비를 들여 아파트를 짓고, 임대료는 3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청에서 1000평씩의 부지를 제공하면 2만5000가구의 소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또 지방 대학생의 거주를 도우려고 비슷한 수준의 10만가구의 대학생 기숙사 건설 계획도 포함됐다.

연합회는 별도의 예산 지원없이 19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오현 사회공헌위원장은 "서울의 쪽방촌 거주 주민과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은 건축비로 저가의 임대 아파트를 지어 제공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견기업연합회 출범식에서 이 방안을 수용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과 건물주의 저항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SM그룹은 모기업인 삼라건설과 우방·신창건설·탁산건설 등 6개 건설회사와 남선알루미늄·경남모직, 전지업체인 벡셀·대한해운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김태균기자

100세 정년에 5년마다 한달 유급 휴가

휴넷 사내카페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왼쪽) 사내도서관인 '상상력발전소'에서 한 직원이 책을 읽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⑱ 휴넷

행복경영·인재사랑 눈길
1년 365학점 교육도 철저
중국진출 매출 20%씩 성장

"직원들이 'TGIF(Thanks God, It's Friday)'가 아닌 'TGIM(Thanks God, It's Monday)'을 외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업체 휴넷의 조영탁 대표는 직원 사랑이 남다르다. 마음에 드는 인재를 발견하면 삼고초려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다. 최근 영입한 임원의 경우 무려 10번이나 영입을 제안하는 삼고초려를 통해 모셔왔다. 이처럼 힘들게 영입한 인재들과 회사를 키워나가기 위해 '행복경영'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기업모토를 1999년 설립이후 유지해오고 있다.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휴넷 혁신아카데미

◆육아휴직도 1년까지 가능

휴넷은 보노만큼이나 독특한 복지제도로도 유명하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회사의 공식 정년이 100세다.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직원에게는 육체적 나이를 떠나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만 5년 근속한 직원에는 한달 간의 '학습휴가(유급)'를 준다. 학습이란 명칭이 붙어있지만 여행, 단기 연수, 육아 등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도 10명의 직원이 학습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얻었다.

전체 직원의 54%가 여성인 회사답게 육아휴직 제도도 잘 갖춰져 있다. 국가에서 정한 산전후 90일 휴가는 물론 원할 경우 1년까지 쓰는 것이 가능하다.

오전 8시, 9시, 10시 등 원하는 시간에 출근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다른 업계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매주 금요일 혁신아카데미

청소년부터 장년층까지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답게 교육제도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휴넷직원들은 하루 한 시간씩 공부해 '365학점'을 따야 한다. 온라인강의를 듣거나 외부강연 참가, 공연 관람 등을 통해 학점을 얻을 수 있다. 최우수 학습자는 1년에 1000점 이상을 이수할 정도로 직원들의 학습열기가 뜨겁다.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열리는 '혁신아카데미'도 자랑거리다. 지난 7년간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 명지대 유홍준 교수,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 등 300여명에 달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휴넷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았다.

책 많이 읽는 CEO로 유명한 조대표의 영향을 받아 직원들의 독서량도 대단하다. 직원들이 신청한 책은 무조건 사주기 때문에 연간 도서 구입비가 2000만원을 넘을 정도다.

조 대표는 "교육 투자는 콩나물에 물 붓듯 당장의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언젠가는 크게 자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투자한 덕분인지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직원들이 많다"고 웃었다.

◆하반기 경력·신입 모집 계획

직원들에게 베푸는 것이 늘어날수록 실적도 덩달아 좋아지고 있다. 매년 15~20% 성장을 지속해 지난해 매출은 197억원,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올해 매출은 26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83명이던 직원도 꾸준히 늘어 올해는 167명에 달한다. 휴넷은 올 하반기 경력직 10여명, 신입직 10여명을 수시채용과 공채를 통해 뽑아 중국시장에 '교육한류'를 일으킬 계획이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내 인생의 주인은 나'란 마인드면 합격

이런 인재를 원한다

"일속에서 행복을 찾고 성공을 즐길 줄 아는 인재가 휴넷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조영탁(사진) 휴넷 대표는 "행복한 성공 파트너"라는 회사 비전을 같이 꿈꿀 수 있는 인재라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기업문화가 매우 독특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출근해서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행복게시판, 행복누계통, 행복경영협의회 등 직원들의 의견과 제언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다.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면접에서 회사에 대해 질문하는 구직자들이 드물다. 지원한 회사에 대해 애정이 있다면 질문이 없을 수가 없다. 이와 함께 "내 인생에 주인은 나"라는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다만 단기간 면접 스킬을 익혀 거짓말을 한다면 바로 들통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구직자들에 대한 조언 한마디

▶▶하늘이 시련을 주는 것은 크게 쓰기 위함이다. 어려움을 겪는 만큼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국명기자

공모전으로 취업관문 넘을까

시사저널·미래부·대한항공 등

취업에 도움되는 공모전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시사저널(www.sisapress.com)은 10일까지 '제3회 대한언론상'을 연다. 공모분야는 언론보도다. 공모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다. 응모자격은 2년제 대학 이상 모든 대학생(휴학생 가능), 대학원생이며 개인 혹은 한 팀에 2인까지 가능하다.

아띠참신문(cafe.naver.com/attichamn)에서도 청춘에 미친 영화제 단편영화 공모전을 17일까지 연다. 응모자격은 전국 초·중·고·대학(원)생이며 공모분야는 창작 단편영화다. 공모주제는 청춘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1부와 작품 DVD 2장이다.

케라시스에서는 '제8회 마케팅 공모전'을 마련했다. 응모자격은 4년제 이상 재·휴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개인·팀 단위 응모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마케팅 디자인이고 공모주제는 케라시스를 발전시키는 두 개의 시선이다. 접수는 25일까지 홈페이지(www.kerasys.net/competition)를 통해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제26회 글로벌소프트웨어(SW) 공모대전'도 눈길을 끌고 있다. 공모분야는 SW 응용 SW, 모바일 앱, 게임, 임베디드, 보안 등이다. SW개발에 관심있는 아마추어는 물론 프로도 참가할 수 있다. 31일까지 홈페이지(www.globalswcontest.com)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한항공의 '디자인 공모전'도 있다.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생(휴학생 포함)과 대학원생(박사과정 제외)이면 1인 2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이미지 디자인, 엽서 디자인이며 공모주제는 '비행기, 아트가 되다'다. 9월 5일까지 홈페이지(youngartist.koreanair.com) 또는 우편·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직장인 35% "퇴출압박 받았다"

사람인 조사, 업무 과다·개별면담에 시달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퇴출 압박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041명을 대상으로 '퇴출 압박을 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34.6%가 '있다'고 답했다.

퇴출 압박을 받은 방법으로는 '과도한 업무지시'(28.1%, 복수응답)와 '인사담당자·상사와의 개별면담'(24.4%)이 많았다. '일을 시키지 않음'(18.3%), '승진누락'(16.1%), '유언비어·소문 퍼짐'(15.6%), '관련 없는 다부서 발령'(14.2%), '자리 비움 수시로 체크하는 등 과도한 관리'(13.3%), '연봉삭감'(10.8%), '회식제외 등 은근히 왕따'(10%) 등도 거론됐다.

퇴출 압박을 받은 이유로는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31.4%, 복수응답), '상사와 마찰'(25.3%)을 1, 2위로 꼽았다. '개인 실적이 안 좋아서'(16.9%), '소속 본부·부서가 축소돼서'(12.5%), '나이가 많아서'(10.3%) 등이 뒤를 이었다.

퇴출 압박을 받은 후 실제로 퇴사한 직장인은 59.4%였다. 그 이유로는 '회사에 정이 떨어져서'(30.8%)가 가장 많았다. '자존심이 상해서'(18.2%), '압박을 버티기 힘들어서'(17.3%), '좋은 모습으로 나가고 싶어서'(10.8%), '더 좋은 회사로 갈 자신이 있어서'(8.9%) 등이 있었다. /이국명기자

호텔서 즐기는 럭셔리 글램핑!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로비를 캠핑용품으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가 로비 라운지에서 오는 30일까지 도심 속 럭셔리한 실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인 원더 이얼'를 선보인다.

호텔은 글램핑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로비 라운지를 갖가지 캠핑 용품으로 꾸몄으며 200년 전통의 독일 맥주인 크롬바커 등 세계 각국의 맥주와 와인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또 호텔 셰프가 조리한 독일식 족발 슈바인 학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전통 음식으로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슈니첼 등이 뷔페 스타일로 준비된다. /황재용기자 hsj@

생맥주와 바비큐로 열대야 차단을

르네상스 서울 호텔 야외 비어가든 인기

도심 속 정원에서 시원한 생맥주와 바비큐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야외 비어가든이 인기다.

비어가든은 호텔의 '잇 플레이스(It place)'로 호텔은 이곳에서 모둠 소시지, 소고기 꼬치구이, 돼지고기 바비큐 등 다양한 메뉴의 잠께 유료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여기에 비용을 추가하면 무제한으로 레드 또는 화이트 와인을 즐길 수 있다.

야외 비어가든은 10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이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다. 문의 02)2222-8630. /황재용기자

"고3 고객님 모셔라!"

수능 D-100 – 유통업계 '수험생 마케팅' 돌입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두고 유통업계가 '수능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업체들은 하루 종일 책을 들여다봐야 하는 수험생의 눈 건강을 위한 블루베리 제품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진 홍삼, 비타민 등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웠다.

KGC인삼공사는 수능 100일을 맞아 정관장 아이패스 H 100일 세트를 출시했다. 청소년용 홍삼인 아이패스 H를 수능 시험 당일까지 섭취할 수 있도록 100포짜리 세트로 만든 제품이다. 이와 함께 5일부터 10일까지 정관장 매장에서 수험생용 홍삼인 정관장 아이패스M·아이패스HG·아이패스H 타블렛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확진단 1환이나 구매 제품 3포를 덤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연다.

CJ제일제당은 다음달 3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메가마트에서 눈 건강 음료인 '아이시안 블루베리'를 최대 48% 할인판매한다. CJ제일제당 측은 여름이 지나면 음료 매출이 줄어드는데, 지난해 수능 100일전 할인 행사 기간에는 아이시안 블루베리 매출이 평월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늦은 시간까지 온라인 강의 등을 들어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학생들을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수험생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벤트도 한창이다.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는 수능 수험생에게 응원 메시지를 적어 넣을 수 있는 행운 텀블러 1500개를 한정 판매한다.

웅진식품은 15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아침햇살 수험생 응원 이벤트'를 벌인다. 이 회사는 응원의 메시지를 받은 수험생 50명을 선정해 아침햇살을 간식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이직원기자

'실론티' 새 옷 갈아입었네!

7년 만에 패키지 리뉴얼

롯데칠성음료가 국내 홍차음료 대표브랜드 '실론티'의 패키지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지난 2008년 이후 7년만에 실시한 것으로, 제품 본연의 맛과 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실론티가 가진 장점인 스리랑카산 홍차 추출액을 사용한 '리얼 홍차 실론티'라는 문구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실론티는 1993년 출시된 후 22년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지난해 기준 400억원 규모인 국내 홍차시장에서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실론티는 스리랑카산 홍차추출액을 사용한 제품으로 추출 후 바로 캔에 담아 신선하고 향이 뛰어나다"며 "이번 리뉴얼을 통해 홍차음료의 대표 브랜드로서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직원기자

뜨거운 여름, 시원한 데이트룩

무더운 날씨도 커플들의 데이트를 막지 못한다. 방학을 맞은 젊은 커플부터 가을 결혼을 목표로 하는 만혼기 커플까지 데이트에는 휴가가 없다. 여름철 시원함과 멋스러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패션을 알아보자.

◆로맨틱의 고전, 화이트 블라우스와 원피스

여성의 경우 지나치게 멋을 부린 의상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무난하다. 로맨틱 룩의 고전 격인 '원피스'나 '블라우스와 스커트'의 매치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화이트 계열의 블라우스는 좋은 인상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되고 어떤 하의를 함께 입어도 자연스러운 멋을 연출할 수 있다.

발랄하고 귀여운 매력을 강조하는 데는 원피스만 한 것이 없다. 특히 플라워 프린트는 귀여움과 여성스러움을 동시에 어필할 수 있어 데이트 룩으로 안성맞춤이다. 앤클라인의 관계자는 "데이트할 때는 과하게 꾸미는 것보다 꾸민 듯 안 꾸민 듯이 스타일링을 연출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조언했다.

◆반바지는 무릎 위 3cm

남성에게 반바지는 편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는 데 바탕이 되는, 여성의 화이트 블라우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성은 '원피스' 남성은 '반바지'가 제격

함께 입을 티셔츠가 스트라이프 패턴이나 무지 티셔츠일 경우 팬츠는 패턴이 없는 블루이나 색감이 뚜렷한 것이 좋다. 상의와 하의 중 한쪽만 강조하는 것으로 세련미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정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다면 피케 셔츠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이때는 운동화보다 단화를 신어야 깔끔해 보인다. 셔츠도 반바지와 함께 입기 좋은데 격식을 차린 듯한 포멀한 느낌을 연출할 때 제격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한여름 '철 없는' 다운 전쟁

아웃도어 업체, 선판매 돌입… 매출 부진 만회하려 시기 앞당겨

폭탄 찌는 한여름 때아닌 다운재킷 전쟁이 벌어졌다.

아웃도어 업체들이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빠르게 다운점퍼 선판매에 나섰다. 지난해 따뜻한 날씨로 겨울 장사를 망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선판매 시기를 앞당겨 부진을 만회하려는 전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스포츠는 9월 14일까지 다운 선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코오롱FnC의 종합 쇼핑몰인 조이코오롱에서 정상가격 49만5000원인 헤스티아 올 다운점퍼와 정상가 79만원인 헤비다운 안타티카 등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어드벤처웨어 브랜드 오프로드도 다음달 14일까지 신상품 다운점퍼 선판매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상 제품은 캠핑 라인 4종, 트래블 라인 2종 등 총 6종으로 방수 소재를 사용해 내한성을 높였으며 제일모직사 인감을 사용해 열손실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선판매 다운 제품은 정상가보다 10%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며 구매고객에게는 소비자가 25만9000원 상당의 베오 중량다운점퍼를 추가로 증정한다.

밀레아웃도어는 지난 2년 연속 완판을 기록한 도브다운의 신제품 '도브다운3'를 선보이고 선구매 고객에게 20%가량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K2는 신상품 다운재킷 구매 시 구매 금액별로 즉시 할인을 해주는 선판매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구매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30만원 이상시 6만원을 깎아준다.

/박지원기자 xxx@metroseoul.co.kr

편의점, 추석선물 "눈에 띄네…"

구찌·코치 가방 등 젊은층 겨냥 이색제품 선봬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편의점들이 빠르게 선물세트 예약 판매를 시작하고 추석맞이에 들어갔다. 지난해 저가형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백화점·대형마트 선물세트에 못지 않은 다양하고 실속 있는 상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GS25는 건강 트렌드에 맞춰 지난해 15종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을 63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가격도 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CU는 참치캔 견과류 스팸 등 먹거리를 비롯해 천연 캔들, 프리미엄 차·바디용품 등 총 12가지의 제품을 직접 선택해서 꾸밀 수 있는 DIY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미니스톱은 최고급 수입육인 호주산 와규와 애플망고, 골드키위와 같은 열대과일 등 고객의 관심이 높아진 신규 상품들을 도입했다.

세븐일레븐은 불고기와 장조림을 한우로 구성된 '한우실속정육', 사과 5입과 배 4입이 들어있는 '알찬사과배세트', 랍스타·그랜드할리벗·새우·완자림 등을 포함한 씨푸드랍스터패밀리세트 (사진) 등을 판매한다.

편의점의 주고객층인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한 선물들도 눈에 띈다.

CU는 폴스미스·토리버치 비츠바이닥터드레 헤드폰 등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해외 브랜드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미니스톱도 몽블랑 벨트·에트로 지갑·캐스키드슨 가방 등 병행수입 품목을 강화했다.

GS25는 명품가방 구찌 5종을 한정수량으로 판매하고, 로지·투미 가방과 유보자·시계·언더외자 가전제품 프라모델·일렉트론 등 색다른 상품을 선보였다.

세븐일레븐은 젠하이저·슈어·AKG 삼성 레벨온 등 헤드폰 6종과 블루투스 헤드폰·고급 이어폰 블루투스 헤드셋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 목록에 포함시켰다.

/김혜란기자 xxx@metroseoul.co.kr

던킨도너츠, 8월 한 달간 '해피 수요일' 이벤트

던킨도너츠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6일·13일·20일·27일) '해피수요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카라멜, 카푸치노 등 2종으로 구성된 던카치노를 50% 할인 판매한다. 리얼 에스프레소 샷을 직접 넣어 만든 이 음료는 풍부한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던킨도너츠의 아이스 음료다. 이 할인 이벤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문 고객에 한해 할인이 가능하며 1인 1잔 한정 판매한다.

이와 함께 글레이즈드 3개 구매 시 3개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던킨도너츠 글레이즈드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정통 도넛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도넛 중 하나라고 업계 측은 전했다.

던카치노 반값·글레이즈드 3개 사면 3개 더!

글레이즈드 도넛 6개로 구성된 글레이즈드 팩은 한 사람당 최대 4팩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에선 한 팩을 3000원에 살 수 있다.

한편 해피수요일 이벤트는 해피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불가하며 타 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또 타 행사나 제휴할인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던킨도너츠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고객들이 풍성한 혜택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혜성기자 xxx@metroseoul.co.kr

롯데리아, 쉑쉑치킨 쿠폰 30만개 쏜다

10월까지 위메프서 발급

롯데리아가 홈서비스 1만원 이상 주문 시 쉑쉑치킨을 무료로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를 펼친다. 쉑쉑치킨을 받기 위해서는 소셜커머스 위메프를 통해 10월까지 '쉑쉑치킨 무료 증정 쿠폰'을 0원에 구매하면 된다. 이 쿠폰은 최대 30만개 운영되며 31일까지 홈서비스 주문당 1개를 사용할 수 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이번 쉑쉑치킨 무료 증정 쿠폰 운영과 같은 홈서비스 프로모션을 매달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각종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롯데리아의 제품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리아의 쉑쉑치킨은 담백한 치킨 가슴살 조각을 바삭하게 튀겨내 칠리·어니언·치즈 등 3종류의 시즈닝 중 하나를 선택해 봉투에 넣어 흔들어 먹는 디저트용 치킨이다.

/김혜란기자

올여름 '냉장고 원피스' 인기

올여름 '냉장고 바지'를 제치고 '냉장고 원피스'가 잇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냉장고 바지의 인기에 힘입어 냉감 소재가 원피스, 셔츠 등으로 번진 것이다.

5일 패션쇼핑몰 아이스타일24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팔린 냉감 소재 의류 중 원피스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4% 증가했다. 상품등록수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00% 가량 늘었다.

특히 원피스를 구매한 고객은 30대가 43%를 차지하며 인기를 이끌었다. 이번 시즌 원피스가 다양한 패턴과 디자인으로 출시돼 외출복·비치웨어 등 활용 범위가 넓어진 것과 오피스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라고 업계 측은 분석했다.

한편 냉감 소재 의류의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86% 증가했고 이 중 바지의 판매량은 61% 상승했다. 티셔츠 판매량도 92% 급증했다. 업계 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장고 티셔츠를 아웃도어 의류 대신 활용하는 남성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혜성기자

즐거운 휴가, 바캉스 베이비는 안돼~

경구 피임약 통해 생리 주기 조절·피임 가능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시작됐지만 여성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다. 바로 생리 주기에 대한 확인이다.

휴가 일정과 생리가 겹치게 되면 휴양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적어진다. 또 여행지에서의 로맨틱한 분위기에 휩쓸려 아무런 준비 없이 성관계를 가진다면 여행 후 불안감과 초조함에 시달릴 수 있고 원하지 않던 바캉스 베이비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피서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생리 주기를 소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경구 피임약은 콘돔처럼 성감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피임 성공률이 92~99.7%에 달한다. 게다가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피임약을 통한 생리 주기 조절도 가능하다.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던 여성이라면 생리 주기 연장을 위해 하루에 한 알씩 정해진 시간에 원하는 날까지 지속해서 복용하면 된다. 다만 하루라도 복용을 잊으면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원하는 날까지 복용한 후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2~3일 후 생리가 시작되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또 피임약을 처음 복용하면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세가 있을 수 있다. 몸이 호르몬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만약 증상이 심하고 지속된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최근에는 적은 용량으로 우수한 피임 효과를 보이는 3세대 피임약도 등장했다. 바로 게스토덴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임약으로 이약들은 피임약 복용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불규칙한 출혈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희경 약사는 "8월은 사람들이 피임약을 가장 많이 찾는 시기로 응급 피임약 처방도 높은 편이다. 바캉스를 떠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둬야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흉터 예방엔 '골든타임' 있다

염증 발생 막고 심하면 레이저치료 받아야

햇살이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피서와 여행 중 피부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기 쉬운 계절이다. 상처를 입으면 손실된 피부가 치유된 흔적, 즉 흉터가 남는다. 흉터 예방을 위한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치료 시기가 관건

상처는 염증·증식·성숙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치유된다. 염증기는 상처의 지혈과정에서 염증세포들이 나타나는 단계고 증식기는 염증세포들에 의해 여러 염증 매개물질이 분비돼 혈관을 생성하고 벗겨진 표피가 다시 증식하는 단계다. 또 성숙기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섬유아세포가 수축되면서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다.

흉터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상처 치유과정 중 염증기부터 개입해야 한다.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면 흉터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상처 부위의 피부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딱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상처 부위가 건조해지면서 딱지가 생기면 상처가 더디게 회복된다. 이때는 습윤밴드 등을 활용해 상처 부위를 습하게 만들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야 한다.

만약 흉터가 이미 생긴 경우라면 피부의 진피까지 형성된 흉터를 깎아내고 해당 부위에 흉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레이저 치료가 도움이 된다. 또 상처 때문에 피부를 꿰맨 상태라면 실밥을 제거하자마자 레이저를 이용해 피부 재생과 흉터 예방치료를 진행해야 효과적이다.

김방순 데스연유 김방순피부과 원장은 "아직까지 흉터가 남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흉터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손상된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부터 예방적 차원의 흉터 치료를 한다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재용기자

물놀이 시즌, 귀와 코에 물먹이지 마세요!

귀마개 착용, 비염 있으면 식염수로 콧속 세척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평소 중이염이나 비염을 앓고 있으면 물놀이 후유증으로 고생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 증상 지속되면 병원 찾아야

물놀이를 하다보면 귀에 물이 들어가기 쉽다. 귀에 물이 들어간다 해도 잘 말려 주기만 하면 건강한 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귀 안쪽에 있는 고막이 물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이염 증세가 있거나 과거 중이염을 앓았던 경우, 혹은 외이도 벽에 상처가 있거나 귀 속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오염된 물이 들어갔을 때다. 특히 외이도염은 심한 통증과 함께 고름이 생기는데 이 질환은 만성적인 고막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또 염증성 비염이 있는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아울러 물놀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코에 이상이 나타나기 쉬우며 혈관 운동성 비염이나 코산구성 비염 등 코의 점막이 과도하게 예민한 사람은 수영장의 소독약이나 강·바다의 오염물질 등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물놀이 전후의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중요하다.

우선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귀마개를 사용하고 귀마개 주변에 바셀린을 발라주면 물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이다. 식초 한두 방울을 섞은 증류수를 면봉에 적셔서 외이도 입구에 가볍게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되며 비눗물로 귀를 씻어 내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귀에 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 뒤 가볍게 귀 입구를 흔들어주면서 물을 빼거나 선풍기,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또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찬 물과 더운 공기를 오가며 생기는 기온 차이를 조심해야 한다. 물에서 놀다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체온 변화가 크지 않도록 수건으로 몸을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콧물이나 재채기가 심해졌다면 물놀이 후 생리식염수로 콧속을 세척해 주는 것이 좋다.

이종엽 이어케어네트워크 하나로이비인후과 원장은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예방해야 하며 비염을 방지하면 만성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놀이 후 콧속이 답답하고 멍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코 막힘, 콧물이 지속되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운전중 교통상해사망까지 보장하는 보험 –

생명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이에요?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시
3억원 일시금 지급
(특약 가입시)

자동차 부상치료비
5만원 ~ 400만원 지급
(특약 가입시)

갱신·할증없이
월 11,990원

080-249-7000

새로 나온 책

인문
3분 철학 오시로 산지/미디어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을 어렵다고 여기지만 사실 기원전부터 현개의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사상과 논리는 우리의 실생활과 그리 멀지 않다. 저자는 34명의 철학자에게 우리의 삶과 밀접한 34개의 질문을 던진다. 이 철학자들의 핵심 사상을 한번에 이해하기 쉬운 키워드와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서 질문에 대한 34개의 '해답'을 알려준다.

요리
우리밀로 만든 건강 발효빵과 과자 최지연/성상출판

우리밀은 글루텐과 수분의 함량이 수입밀과 다르기 때문에 반죽 시간이나 온도, 발효 시간 등에서 차이가 난다. 저자는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17년 동안 수천번의 테스트를 통해 완성한 36가지의 우리밀 발효빵, 39가지 우리밀 과자 레시피를 책으로 엮었다.

자기계발
귀농귀촌 6차산업으로 성공하기 유상오/한스미디어

6차산업은 농림수산업에 제조업, 서비스업을 더한 산업으로 생산과 가공뿐만 아니라 유통과 관광까지 접목한 융·복합 산업이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귀농·귀촌 수요자의 증가로 연계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자는 자신이 잘하는 것, 평생 해오던 것을 농업과 결합해 6차산업으로 발전시킨다면 귀농·귀촌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풍부한 사례와 분석을 통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은퇴설계자에게 조언을 건넨다.

과학
수학, 인문으로 수를 읽다 이광연/한국문학사

'융합과 통섭의 지식 콘서트' 시리즈의 세 번째 책으로 수학의 근본 개념과 수학이란 학문에 깃든 흥미로운 요소를 타 학문과 연계해 소개하고 있다. 또 수학을 어려워하는 독자들을 위해 인문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실생활과 연관된 수학 원리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쉽게 설명한다.

건강
엄마 달맞이 가자 허영구/소금나무

부산 해운대 달맞이고개에서 달맞이한의원을 운영하는 저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암 치료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특히 책은 에세이와 비슷하고 철학·문학책과 같은 저자의 고유한 필체를 담는 동시에 면역치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역사
지도로 보는 세계지명의 역사 21세기연구회/이다미디어

지명은 역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이자 그 지역의 특수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녹아있는 타임캡슐이자 사람들의 언어·종속·종교가 스며있는 현장이다. 이에 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지명의 유래와 역사를 풀어내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사적 과정을 얘기한다.

정치 사회
할리우드 독점전쟁 장서희/컨북스

책은 지난 1948년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직통합 구조가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해 극장의 분리를 명령한 '파라마운트 판결'을 조명한다. 저자는 이 판결 이후 미국 영화산업의 변화상을 영화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그 동안 판결에 쏟아졌던 부정적 시각과 차별화된 분석을 보여준다.

소설
누나 박설자/한솔사

열두 살 소년의 눈에 이 세상은 신비로운 세계이자 전설과 신화, 선화와 동화로 가득한 세계다. 그 세계는 사실이 아닐지라도, '진실'한 세계인 것이다. 소년의 천진난만한 시선과 넘치는 유머 사이로 슬픔과 애환이 느껴진다. 단양을 배경으로 한 소설은 한국인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세계를 충실히 구현해 냈다.

시 에세이
머리에 꽃 이고 아리랑 최은진/난다

책과 음반이어울려 있는 구성으로 글과 음악이 총 2부에 실렸다. 1부에는 작가가 그린 찌은 트위터 글 중 일상을 주제로 한 평범하면서도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추렸다. 2부에서는 시와 가까운 가사를 음미해보고자 저자가 선택한 근대 가요 13곡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더 나은 지방자치 가능할까?

우리가 알아야 할 지방재정 이야기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비율은 8대 2 정도로 국세, 즉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훨씬 많다.

하지만 정부가 쓰는 돈을 보면 이 비율이 역전된다. 6대 4 정도로 지방정부가 세금을 많이 사용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대행하고 지방재정이 중앙과 지방, 정치인과 행정가, 지역 유지와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어니게임이기 때문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답을 썼었다. 이 복잡한 실타래에 지방재정의 문제가 담겨 있다고 말이다.

그는 이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좋은예산센터에서의 활동과 경험을 더해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 원리와 지식은 물론 현실 사례를 두루 담아냈다.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김태일 좋은예산센터/코난북스

지방자치의 정의와 의의, 지방재정의 구조와 체계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불거진 기초연금 논란, 지방공기업 부채, 세 모녀 자살사건 등과 같이 한국사회의 핫이슈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어느 한편에 서서 지방재정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지방재정을 쟁점별로 나눠 핵심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개발사업과 복지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가 확대될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란다.

국회, 청와대, 중앙정부보다 우리 삶에 훨씬 가까운 일들을 담당하는 게 지방정부다. 또 그만큼 지방재정 역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세계 여행 피의 순교자 김대건 신부의 정신이 깃든 마카오

카지노와 공원, 리조트와 여행지로 유명한 마카오. 사실 이곳은 한국 천주교의 기틀이 마련된 성스러운 곳이기도 하다. 1836년 12월 유진을 출발한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등 당시 15세의 신학생들은 이듬해 6월 마카오 파리외방선교회 극동 대표부에 도착한다. 이후 세번 남짓 마카오에서 신학생활을 한다. 마카오의 성 안토니오 성당 앞에는 김대건 신부의 목상이 서있다. 성 안토니오 성당은 김대건 신부가 65개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며 사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 곳이다. -'한국인에게 더 특별한 세계여행지'(유종현/상상출판) 중- /김학철기자

신은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존재인가

화제의 책

신은 죽지 않았다
아미트 고스와미 지음/이봉주 옮김/시그마북스/18,000원

양자 물리학으로 '의식' 설명할 수 있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자연 현상을 설명해온 기존 과학에게 신이란 눈에 보이지도, 실존하지도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 존재라고 여겨졌다.

20세기 물리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양자 역학은 바로 이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떠올랐다. 저자는 양자 물리학을 통해 신의 존재를 과학적인 증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자 역학은 원자, 분자, 소립자 등의 미시적 대상에 적용되는 역학이다. 철저한 인과법칙을 따르는 기존의 고전 역학과 달리 비록 현재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도 미래에 일어나는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양자 물리학 안에는 불확정성 원리가 있으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여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인 것이다. 이를 통해 신의 존재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존재의 근본은 물질이 아니라 '의식'이라고 단정한다. 기존과학에서는 의식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지만 양자 물리학을 통해 의식과 정신에 대해 설명 가능하다는 것. 책은 양자 물리학을 통해 드러난 단서들 속에서 신의 존재, 신의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며 신의 본질, 영혼의 존재, 꿈의 힘, 사랑의 보편성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정혜인기자

"강인함 벗고 유쾌·편안함 입었죠"

'해적: 바다로 간 산적'

김남길

가존 이미지와 다른 코믹한 변신
힘 뺀 연기 고민 속 초심 의미 깨우쳐
스타 자질보다 배우 덕목 중요

김남길(33)하면 드라마 '선덕여왕'의 비담을 떠올리게 된다. 섬세한 선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남성적인 강인함은 김남길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이미지다. 그런 김남길이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 감독 이석훈)에서 코믹하고 엉뚱한 캐릭터를 맡았다. 유쾌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온 새로운 변신이다.

6일 개봉하는 '해적'은 조선의 국새를 삼켜버린 고래를 둘러싸고 해적과 산적, 개국 세력이 펼치는 갈등과 모험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 영화다. 김남길은 고려 무사 출신으로 산적단 두목이 된 장사정을 연기했다. 산적들의 두목다운 용맹함과 카리스마를 지녔으나 제대로 된 도적질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허당스러운 인물. 김남길에게 '해적'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작품이었다.

"다른 것보다 비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드라마 '상어'를 하면서 느낀 연기적인 실패로 조금은 힘을 빼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작품을 찾고 있었거든요. 시나리오 속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좋은 오락영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선택했어요."

장사정은 그 동안 김남길이 연기한 인물들 중 가장 밝고 유쾌한 인물이다. 때로는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밝은 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도적질이 계획에서 틀어지자 당황한 나머지 가장 먼저 줄행랑을 치고, 해적단 두목 여월(손예진)에게 능청스러운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장사정은 김남길이 지닌 코믹함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과거 갈등을 겪었던 모흥갑(김태우)과 마주할 때는 무사 출신의 진지함을 놓지 않는다. 그렇게 김남길은 유쾌함과 카리스마의 균형을 맞추며 연기에 임했다.

그러나 힘을 빼고 연기하는 것이 마냥 쉬운 건 아니었다. 스크린 속 장사정의 유쾌함의 이면에는 연기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숨어 있다.

"이전에는 연기할 때 늘 자신감이 있었어요. 부족한 점은 고치면 된다는 자신감이었죠. 그런데 '해적'을 하면서는 성격상 밝은 것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연기를 하면서 난생 처음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배우라는 직업이 나랑 잘 안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유해진, 이경영 등 선배 배우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김남길은 자신이 마주한 연기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고민했다. 마침내 찾아낸 해답은 "초심을 찾을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이었다.

"하루는 밤을 지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수하게 연기만 생각하고 무대 위에 오르는 것이 행복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품이 들어오면 한다는 무미건조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무언가 깨우쳐졌어요.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죠."

'해적'으로 얻은 연기의 깨달음은 현재 촬영 중인 '무뢰한'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뢰한'에서는 심각한 감정을 힘들이지 않고 표현하는 또 다른 연기 방식을 터득해가는 중이다. 전도연과 호흡을 맞추면서 얻는 경험들도 배우로서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김남길은 스스로를 "배우의 덕목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스타로서의 자질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것은 겸손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내린 판단이다. 그는 오랜 무명시절을 지나 서서히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도 순간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며 배우로서의 건강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얼굴이 많이 알려진 배우가 연기력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건 자꾸 숨으려고 해서인 것 같아요. 연기를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도 하고 대중들과 교류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저는 대중들 안에 섞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험으로 연기할 거예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기자 도트(제이딸) 디자인/최송미

유재석·신동엽·김병만 '新삼국지'

하반기 예능 주도권 싸움 볼거리

'국민MC' 유재석과 신동엽, 김병만이 올 하반기 방송가 예능프로그램 접수에 나선다.

이들 세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해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유재석은 4년 만에 새로운 콘셉트의 토크쇼 '나는 남자다'를 선보인다. '나는남자다'는 지난 4월 파일럿 방송 후 정규 편성 됐으며 20회 시즌제로 방영된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남성만을 방청객으로 초대해 남자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자별화됐다.

'섹드립 제왕' 신동엽은 패션 예능 시재를 준비하고 있다. 신동엽은 JTBC '마녀사냥', tvN 'SNL 코리아' 등의 프로그램에서 듣는 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특유의 비유법으로 솔직 유쾌한 성인토크를 선보이며 19금 예능의 장을 열었다. 이는 곧 예능계의 핫 키워드로 떠오르며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웃음을 선사했다.

신동엽은 여세를 몰아 예능 프로그램에 패션 키워드를 접목 시킨 '패션왕 코리아2'를 선보인다. 새로운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패션왕 코리아 시즌2'는 국내 최정상 디자이너들과 셀러브리티가 한 팀을 이뤄 매 회 주어진 미션에 맞는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룩을 선보이는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전 시즌과 차별화된 서바이벌 방식과 미션의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달인' 김병만도 자신의 장기인 자기계발에 초점을 맞췄다. '정글의 법칙'에서 주어진 상황과 재료들만으로 숙소를 만들어내는 실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한글주택을 직접 지어 '노전의아이콘'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낸 김병만이 이달 첫 방송될 새 예능 프로그램 '예띠 발리지 ~즐거운 가 보' 또 한번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올해 초 '주먹 쥐고 소림사'에서 소림무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낸 김병만은 주먹 쥐고 예능 프로그램으로 '주먹 쥐고 소림사'에 이은 시리즈 '주먹 쥐고 주방장'에 출연한다. 중국 주방을 찾아 요리비법을 전수받는 등 주방장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담을 예정이다.

/유선오기자 yse@metroseoul.co.kr

크레용팝 첫 정규앨범 발매

걸그룹 크레용팝(사진)이 첫 정규앨범으로 돌아온다.

9월 발매될 음반은 크레용팝이 데뷔 2년 2개월 만에 선보이는 첫 정규앨범이라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크레용팝의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는 5일 "크레용팝이 오는 9월 컴백을 목표로 녹음과 안무연습에 한창"이라며 "첫 정규앨범인 만큼 모든 면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용팝은 지난 6월부터 약 한 달간 세계적인 팝가수 레이디 가가의 북미투어 콘서트 '아트레이브: 더 아트팝볼' 오프닝을 장식한 후 지난달 귀국하자마자 쉴 틈 없이 이번 정규앨범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빠빠빠'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직렬5기통 춤'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각종 연일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쓴 크레용팝은 이후 '꾸리스마스' '어이' 등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전효정기자

에이핑크 '노노노'로 열도 공략

10월 22일 일본 데뷔

걸그룹 에이핑크(사진)가 일본 점령에 나선다.

에이핑크는 지난 4월 일본 도쿄 시나가와 스텔라볼에서 개최한 데뷔 쇼케이스 자리에서 "일본 공식 진출일이 10월 22일로 결정됐다"며 "이날 유니버셜 뮤직을 통해 데뷔 싱글 '노노노'를 발매한다"고 깜짝 공개했다.

에이핑크 멤버인 남주는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인 '노노노'로 에이핑크를 알리고 싶다"며 "특히 이 곡은 따라 부르기가 쉬운 만큼 발매되면 꼭 불러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쇼케이스 행사에는 일본 지상파 방송사인 후지TV를 비롯해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 덴츠, 도쿄 스포츠신문 등 140여개의 매체의 40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해 에이핑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뒷받침했다.

에이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에이핑크 일본 진출에 대한 현지 반응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현지 관계자들의 러브콜에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음악계에 청순돌의 자위를 확립한 에이핑크가 현지에서도 전매특허 매력을 각인시킬 수 있을 지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에이핑크는 공식 활동에 앞서 유료 팬클럽 판다 지관을 결정해 눈길을 끌었으며, 최근 회원수가 4000여 명으로 급증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전효정기자

소녀시대 오리콘 K-팝 그룹 신기록

최초 앨범 주간차트 2주 연속 1위

소녀시대(사진)가 일본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소녀시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일본 첫 베스트 앨범 '더 베스트'로 12일 연속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1위 행진을 하고 있는 동시에 2주 연속 주간차트 정상을 지켰다.

2주 연속 앨범 주간차트 1위 기록은 한국 그룹으로는 최초다. 한국 아티스트로는 2004년 1월 보아가 정규 3집 '러브&아니스티'로 같은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소녀시대는 소속사 선배인 보아 이후 10년 6개월 만에 대기록을 달성했다.

앞서 소녀시대는 '더 베스트' 발매 첫 주인 지난주 오리콘 앨범 주간차트 1위에 오르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여성그룹 사상 최다 앨범 주간차트 1위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주간차트 1위는 2011년 6월 정규 1집 '걸스 제너레이션', 지난해 12월 정규 3집 '러브&피스'에 이어 세 번째다.

오리콘은 5일 홈페이지 뉴스에서 소녀시대의 차트 기록을 상세히 보도했다.

한편 소녀시대는 오는 15일 서울월드컵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4 인 서울'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

지금 예능은 '남성시대'

'아빠…' '비정상회담' '꽃보다…' '슈퍼맨…' 남성 중심 프로 인기

현재 방영 중인 다수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남성 출연자 위주의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최근 예능가에 '남성시대' 바람을 일으킨 첫 주자는 MBC '일밤-아빠 어디가'(왼쪽 사진)다. '아빠…'는 스타 아빠와 자녀가 함께 여행을 떠나며 겪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방송 초반 출연진 대부분은 자녀를 보살피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발전된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각에선 '아빠…'가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만 여겨졌던 육아를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 몫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KBS2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여행이 아닌 일상에서 아빠가 아내의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담은 '본격 육아 예능'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출연진 중 한 명인 개그맨 이휘재는 어린 쌍둥이 아들 서준·서언의 기저귀를 가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이젠 아내 없이도 아이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슈퍼맨'이 됐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강자로 떠오른 JTBC 역시 남성 출연자 위주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간판 프로그램 '마녀사냥'은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를 앞세워 지난해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썸' 열풍을 만들었다. 지난달 방송을 시작한 '비정상회담'(가운데)은 한국어에 능숙한 11개 국 출신의 외국인 패널이 모였다는 점에서 남자판 '미녀들의 수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매회 한국인 게스트가 등장해 다양한 안건을 상정한 후 토론을 나눈다는 점이 한국 이성과 데이트 문화를 주로 다루던 '미녀들의 수다'와 다르다.

남녀 모두의 이야기를 고르게 담으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KBS2 '1박2일'에 이어 tvN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등 다양한 여행 버라이어티를 만들었던 나영석 PD는 '꽃보다' 여행 시리즈의 마지막 편 '꽃보다 청춘'(오른쪽)을 선보였다.

'꽃보다 청춘'은 유연석·손호준·바로로 구성된 라오스 팀과 20년 우정을 자랑하는 유희열·윤상·이적의 '페루' 팀으로 나눠어 진행된다. 두 개의 여행팀 모두 남자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에 나 PD는 지난달 28일 제작발표회에서 "'꽃보다' 시리즈는 할배-누나-청춘 이 세 가지로 끝나지만 출연진만 바꿔서 이 포맷을 유지할 계획은 있다"며 '꽃보다 청춘' 다음 시즌에 젊은 여성 스타도 섭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MBC '일밤-진짜 사나이'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군대 이야기를 담았지만 남성은 물론 여성 시청층에게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진짜 사나이'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연예인 리얼 입대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남성 연예인만이 출연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지난 4일 "배우 김소연·홍은희·라미란, 걸스데이 혜리, 가수 지나, 개그우먼 맹승지, 쇼트트랙 선수 박승희 등이 등장하는 여군 특집을 진행한다"고 밝혀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선기자 [email partly illegible]@metroseoul.co.kr

빅뱅 팬덤 VIP 세계 최강 눈앞

빌보드 투표서 결승진출

빅뱅(사진)이 미국 빌보드에서 주관한 팬덤 투표 '팬 아미 페이스-오프'에서 결승에 진출했다.

빅뱅의 팬덤인 VIP는 3일 종료된 4라운드에서 총 65.87%의 투표율을 기록해 34.13%를 기록한 스킬렛의 팬덤인 디 판네드를 두 배 가까운 격차로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했다.

빌보드는 지난달 7일부터 '어떤 팬클럽이 가장 강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투표를 시작했다. 이번 투표는 총 32개의 유명 팬덤을 대상으로 5번의 라운드를 거쳐 챔피언을 가린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투표 경쟁에서 빅뱅의 팬덤인 VIP는 1라운드에서 리한나의 팬덤인 리한나 네이비, 2라운드에서 셀레나 고메즈 팬덤인 셀레네이터스, 3라운드에서 소녀시대 팬덤인 소원, 4라운드에서는 스킬렛의 팬덤인 더 판네드를 차례대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VIP는 미국 록 밴드 서티 세컨즈 투 마스의 팬덤인 디 에슐론과 경쟁한다. 서티 세컨즈 투 마스는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으로 2014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자레드 레토가 속한 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빅뱅 팬덤의 우승여부가 결정되는 결승 투표는 10일 마감된다. /유순호기자 [email illegible]

"모태솔로의 사랑 본능적"

'기분 좋은 날' 황혼·중년 연애로 힐링 선사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의 세 커플이 각자의 사랑을 소개했다. 박세영·이상우는 본능적인 연애, 나문희·최불암은 애틋한 황혼 로맨스를 하고 있다. 김미숙·손창민은 고백 직전의 중년 커플을 연기 중이다.

5일 일산 SBS에서 열린 드라마 기자간담회에서 박세영은 서재우(이상우)와의 사랑에 대해 "이전 기자간담회에서 모태솔로의 풋풋한 사랑을 지켜봐 달라고 했는데, 기대와 달리 우리 커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본능적이다"며 "연애 초보가 아닌 고수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둘 다 효심이 깊다. 둘의 사랑만큼이나 가족도 중시하는 인물들"이라며 "조부모, 언니에게서 처음이지만 제대로 된 정석대로의 FM 사랑을 배우고 있는 커플"이라고 덧붙였다.

최불암과 나문희의 황혼 로맨스는 아내 이순옥(나문희)의 파킨슨병 진단으로 급격히 애틋해졌다.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내를 챙기고 애정표현을 한다. 이순옥은 "이제 둘만 살아보자"고 남편에게 말했고, 두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다.

최불암은 이날 "역할을 소화하면서 부부애를 배우고 있다"며 "인간성, 사랑, 가족의 회복이 우리 시대 화두로 던져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문희도 "실제 주변 친구들 중 이픈 사람이 많아졌다"며 "인생의 마지막에서 병은 일차사분에 불과할 것이다. 의연하게 병들어가는 이순옥을 표현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부부의 사랑을 설명했다.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 손창민 김미숙

김미숙은 "한송정은 이미 다 큰 딸이 있는 이혼녀고, 남궁웅(손창민)은 처음이다. 그런 여자 입장에서 순진하게 다가오는 이 남자에게 어떻게 표현할 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힘들게 사는 여성에게 힘이 될 지 독이 될 지 아직 모르겠다. 상식적인 정서로 우정 같은 사랑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종영까지 20회를 남겨 둔 '기분 좋은 날'은 사랑과 결혼, 가족의 참된 의미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드라마로 막장과 불륜, 출생의 비밀이 없는 착한 작품을 표방한다.

/전효진기자 [email illegible]

드라마 듣는 재미 있어야

젊은 감각 '괜사'… 노래 출중 '트로트'… 클래식 승부 '유혹'

연출과 호연은 드라마의 보는 맛을 살리는 필수 요소다. 최근엔 듣는 재미도 중요해졌다. SBS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이하 '괜사'),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이하 '트로트')은 젊은 감각을 가미한 배경 음악으로 귀를 사로잡는다. SBS 월화극 '유혹'의 경우 클래식이나 올드팝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다.

'괜사'는 등장인물의 대사 처리와 화면 연출이 짧은 호흡으로 진행된다. 작품이 젊고 룸메 보이는 이유다. 쉴 틈 없이 들리는 음악도 극의 탄력을 잡아 준다. '괜사 배경 음악'은 이미 국내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다. 가사가 있는 수록 곡뿐 아니라 멜로디 위주의 음악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메인 테마곡인 그룹 럭소 멤버 권어 부른 '최고의 행운'은 공개 당시 주요 음원 사이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트로트'는 첫 회 방송부터 구성진 트로트 가락으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매력을 부각했다. 노래 실력이 출중한 정은지·지현우·신성록이 직접 참여해 캐릭터를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은지는 다양한 트로트를 맛깔 나게 소화한다.

밴드 더 넛츠의 보컬 출신인 지현우는 OST '하루 종일'을 공개 했다. 곡은 작품에서 장준현(지현우)이 최춘희(정은지)를 위해 작곡한 고백 노래다. 뮤지컬 배우로서 가창력을 인정받고 있는 신성록도 '꿈 꿈 끓어요'로 최춘희를 향한 마음을 재치 있게 표현했다. 이재상 PD는 "연기력과 매력, 노래 잘하는 사람을 원했다"며 출연진에 대해 "완벽하다"고 만족해 했다.

'유혹'의 배경 음악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드라마는 불륜과 사랑 사이에 있는 네 남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가볍지 않은 내용을 클래식과 올드팝으로 표현한다. 최근 클래식은 JTBC 드라마 '밀회', 영화 '인간중독' 같은 은밀한 남녀 관계를 보여줄 때 활용되고 있다. '유혹'도 비발디 사계, 쇼팽 에튀드로 인물의 감정을 그려낸다. 또 진추하·아비의 '원 서머 나이트'를 조권 케이의 목소리로 편곡했다.

그러나 '생뚱맞다'는 비판이다. 관계를 만들기 위한 억지 설정이고 상황과 음악이 어울리지 않는 다는 것.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유혹'은 현대적인 감각의 작품이 아니다"며 "분위기를 맞추다 보니 클래식과 팝송을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효진기자 sonh89@metroseoul.co.kr

SBS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 / KBS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 지현우 / SBS 월화극 '유혹' 권상우·최지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신작 제작 중단 — 미야자키 하야오 은퇴 영향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으로 잘 알려진 일본 애니메이션 명가 스튜디오 지브리가 제작 부문을 해체하고 휴업에 들어갔다.

산케이신문은 5일 "스튜디오 지브리가 제작 부문을 해체하고 일시 휴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브리의 스즈키 도시오 대표이사(프로듀서)는 지난 6월27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스튜디오 지브리의 제작 부문 해체 방침을 밝혔다. 현재 일본 내에서 상영 중인 '추억의 마니'를 끝으로 신작은 당분간 제작하지 않을 예정이다.

스즈키 도시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작품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신작 제작을 잠시 중단하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가 이번 제작 부문 해체 방침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기도 했다.

스튜디오 지브리는 지난 1985년 미야자키 하야오와 다카하타 이사오를 주축으로 설립됐다. 이후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반딧불의 묘' '모노노케 히메'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인기를 끌었다. 2001년 개봉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일본 영화 역대 흥행 수입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미야자키 하야오와 다카하타 이사오의 뒤를 이을 차세대 감독을 발굴하지 못한 스튜디오 지브리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여러 차례 위기에 닥쳤다. '게드전기' '마루 밑 아리에티' '코쿠리코 언덕에서' 등 젊은 감독들의 작품들을 선보였으나 스튜디오 지브리의 명성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해체설은 지난해 선보인 '바람이 분다'를 끝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가구야 공주 이야기'와 요네바야시 히로마사 감독의 '추억의 마니' 등 최근 작품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 성적을 기록하면서 해체설이 더욱 힘을 얻었다.

/장병호기자

액션 어드벤처 '킹스맨' 10월 개봉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매튜 본 감독 신작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매튜 본 감독의 신작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오는 10월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영국 초대형 첩보 조직의 모습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이 조직의 베테랑 요원이 잠재력 있는 청년들을 극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비밀 요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과 그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비밀 스파이가 돼 활약하는 것을 그렸다.

매튜 본 감독은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로 '엑스맨' 시리즈의 부활을 이끌며 연출가로 재능을 인정받았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윈티드'의 원작자 마크 밀러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제작진이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인 신참 비밀 요원 에그시 역은 할리우드 신예 배우 태런 에거튼이 맡았으며, 콜린 퍼스가 스파이 훈련을 담당하는 베테랑 비밀 요원 해리 하트 역으로 함께 했다. 이밖에도 사무엘 L. 잭슨, 마이클 케인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한다.

/장병호기자

강동원·송혜교의 특별한 가족

'두근두근 내 인생' 포스터·예고편 공개

올 추석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감독 이재용)이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극중 서른셋 어린 나이의 부모인 대수(강동원)와 미라(송혜교),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늙어가는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열여섯 살 아들 아름이의 따뜻하고 밝은 미소를 담았다. 소탈한 부모로 변신한 강동원, 송혜교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메인 예고편도 함께 공개됐다. 철없는 아빠와 당찬 엄마로 변신한 강동원·송혜교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담았다. 아름이의 유일한 친구인 옆집 할아버지 장씨 역의 백일섭, 아름이의 주치의 역을 맡은 이성민 등 조연 배우들의 등장도 예고한다. 이들 배우들의 영화 속 앙상블이 기대감을 갖게 한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열일곱 나이에 자식을 낳은 어린 부모와 열일곱을 앞두고 여든 살의 신체 나이가 된 세상에서 가장 늙은 아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김애란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했다. 다음 달 3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맨유, 리버풀 누르고 기네스컵 우승

판 할 감독 팀 본격 재정비… 가가와 등 이적 대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숙적 리버풀을 누르고 기네스컵 우승을 차지했다.

루이스 판 할(60) 감독이 이끄는 맨유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 기네스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결승전에서 리버풀에 3-1 역전승을 거뒀다. 전반 스티븐 제라드에게 페널티킥을 내줬던 맨유는 웨인 루니와 후안 마타의 추반 연속골, 제시 린가드의 쐐기골 등을 앞세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일명 '장미의 전쟁'이라 불리는 맨유와 리버풀의 경기는 긴장감이 넘쳤다.

프리시즌 대회였지만 양 팀 모두 최상의 전력을 내세워 숙명의 라이벌전임을 느끼게 했다. 맨유는 루니와 지자리토가 최전방에 섰고 마타가 후방에서 지원했다. 리버풀은 리키 램버트를 선봉에 세우고 라힘 스털링 등이 선발 출격했다. 선제골은 전반 14분에 나왔다. 스털링이 얻은 페널티킥을 제라드가 골로 연결했다.

맨유는 후반 10분 지자리토가 연결한 크로스를 루니가 왼발을 살짝 갖다 대면서 골문 오른쪽으로 공을 집어 넣었다. 동점골이 터진 2분 뒤 마타가 승부를 뒤집었다. 루크 쇼가 밀어준 패스를 받아 골문 정면에서 그대로 왼발 슈팅을 연결해 역전골을 기록했다.

후반 32분 교체 투입된 린가드는 교체 10분 만에 애슐리 영의 크로스를 받아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시켜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루니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 AS 로마전에서 2골을 터뜨리며 맨유의 상승세를 이끌었고, 결승전에서도 감각적인 동점골로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해 대회 MVP로 선정됐다.

한편 맨유는 판 할 감독 체제가 이번 경기 이후 종원 라인업을 천명한 만큼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판 할 감독은 이날 스포츠 전문채널 ESP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투어가 끝나면 선수들을 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식 후) 거의 모든 선수를 출전시켜 개별 선수의 기량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됐으니 이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전열에서 배제된 선수에게는 비리 이적할 기회를 줄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 이적시장은 이달 31일까지다. ESPN에 따르면 가가와 신지, 지자리토, 윌프레드 자하, 마루앙 펠라이니, 안데르손 등은 잔류가 불투명한 선수로 분류됐다.

/장성환기자 ysw@metroseoul.co.kr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웨인 루니가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박인비·리디아 고 마이어 첫 우승 도전

세계랭킹 2위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왼쪽 사진)와 3위 박인비(26·KB금융그룹·오른쪽)가 톱 랭커들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설 대회 초대 우승을 다툰다.

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의 블라이드필드 골프장에서 열리는 마이어 LPGA 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우승상금 22만5000달러)에서다. 이 대회에는 리디아 고와 박인비를 비롯해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4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5위 렉시 톰프슨(미국) 등 세계 1~5위 선수가 총출동한다.

이번 대회에서 리디아 고는 LPGA 2연승이자 시즌 3승을 노린다. 그는 지난달 27일 막을 내린 국가대항전인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앞서 열린 마라톤 클래식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 우승으로 LPGA 투어 통산 상금 106만 달러를 기록했다. 사상 최연소 상금 100만 달러 돌파 기록을 세웠다.

프로로 전향한 첫 해인 올해 16개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해 우승 2회, 준우승 2회를 포함해 8차례 톱 10을 기록하며 정상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는 세계랭킹 1위도 넘보고 있다.

박인비는 한국 여자골프의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그는 지난 6월 매뉴라이프 클래식에서 LPGA 투어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이는 올 시즌 교포 선수를 제외하고 한국 선수 중 유일한 우승 기록이다.

박인비·유소연·최나연·김인경이 출전한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는 3위에 머물며 세계 최강의 위상이 흔들렸다. 마이어 클래식은 지난해 박인비가 우승을 차지한 에이지대회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 직전에 열리는 대회다. 박인비로서는 타이틀 방어 도전에 앞서 샷 감각을 조율할 기회이기도 하다.

/장승호기자

류현진, 에인절스 핵타선 잠재워라

8일 13승 재도전 원정길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지역 라이벌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상대로 시즌 13승에 재도전한다.

MLB닷컴에 따르면 류현진은 8일 오전 11시 5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에인절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에인절스는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2위에 올라 있지만 승률 0.604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인 다저스의 승률(0.558)을 웃도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에인절스는 1위 오클랜드를 1게임차로 쫓고 있고, 다저스는 2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1.5게임차로 쫓기고 있다. 때문에 두 팀은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승부를 치르게 된다.

5~6일 다저스타디움에서 먼저 경기를 치르고 7~8일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붙는 4연전 일정이다. 5일 경기에서 다저스는 잭 그레인키를 선발로 내세우고도 0-5로 완봉패했다. 클레이턴 커쇼, 댄 하렌, 류현진을 차례로 선발 등판하는 남은 3연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류현진과 상대할 투수는 에이저리그 10년차 좌완 C.J. 윌슨이다. 올 시즌 8승 7패에 평균자책점 4.74의 윌슨은 최근 10경기에서 2승 4패에 평균자책점 7.21에 그칠 정도로 부진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상대할 에인절스 타선은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진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에서 2할대 초중반에 머물던 강타자 조시 해밀턴과 알버트 푸홀스가 정상 궤도에 올라 있다. 마이크 트라웃(타율 0.303·홈런 25)이 이끄는 에인절스의 팀 타율은 0.264로 메이저리그 3위다. 팀 득점(553득점)은 2위, 팀 출루율(0.328)은 7위, 팀 장타력(0.415)은 4위를 기록할 정도로 타선이 막강하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5일

■ 잠실

KIA	010	000	010	2
두산	030	050	00X	8

[illegible]

■ 목동

SK	000	000	300	3
넥센	000	231	02X	8

[illegible]

■ 청주

삼성	112	300	007	14
한화	000	000	010	1

[illegible]

추신수 1안타 1볼넷… 텍사스 4연패

추신수(32·텍사스·사진)가 누 경기 연속 무안타 행진을 끊고 안타 생산을 재개했다. 그러나 팀은 연패 탈출에 실패했다.

추신수는 5일 미국 일리노이주 U.S. 셀룰러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우익수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1삼진을 기록했다.

이로써 추신수는 지난 2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지 세 경기만에 안타를 쳤다. 이후 3일과 4일 클리블랜드전에서는 무안타에 그쳤다.

이날 안타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34에서 0.235로 소폭 올랐다.

그러나 텍사스는 화이트삭스에 3-5로 역전한 이후 강우콜드게임 4연패 늪에 빠졌다. 텍사스는 8월 들어 치른 4경기에서 전패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장성환기자

2014 인어공주,
사랑찾아 in서울 하다

tvN 몰오른 로맨틱 판타지

잉여공주

내일 밤 11시 tvN 첫방송

조보아 | 온주완 | 송재림 | 박지수